
의재 허백련의 1924년 '계산청취도'. 윤영돈 소장본.

"추운 겨울에는 박물관서 불교미술 감상을"

회화 · 사찰 · 불교민속 3색 전시전 눈길

연말 연시를 맞아 불교미술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의 특별전이 눈길을 끈다. 회화부터 사찰문화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전통회화 최후의 거장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 전을 11월 24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연다. 의재 허백련을 집중 재조명하고, 15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재 허백련(1897~1977)은 추사 김정희, 소치 허련, 미산 허형으로 이어지는 남종화의 맥을 계승한 이다. 평생 선비로서의 풍모를 잃지 않은 문인이었지만 효당 최봉술 스님을 비롯해 청남 오재봉 등과도 의형제를 맺는 등 두루 교류했다.

특히 기독교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도 단군 사상 계승 등 민족정신을 강조하고 불교계와도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서예에도 조예가 깊어 곡성 도림사의 현판이 그의 글씨로 남아있다.

추사 김정희와 초의 스님, 그리고 소치 허련의 교우를 흠모한 의재는 추사가 초의 스님에게 써준 글에서 유래해 자신의 당호를 '수류화개관'이라 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가계와 생애 △사승(師承)과 교유(交遊) △예술세계 △의재 허백련의 제자들 총 4부로 구성된다.

먼저 1부는 '가계와 생애'로 열린다. 대표작은 '산수(1953)'로 그의 나이 63세가 되던 1953년 정월에 그린 작품이다. 산수에서는 노(老)대가의 무르익은 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속 글귀는 명나라 말기 중국의 서화가이자 이론가인 동기창 등이 역설한 '남북종화론'과 원나라 하문언의 '화론'이다.

추사 김정희가 초의선사에게 서간과 함께 써서 보내준 소동파의 시도 눈길을 끈다. 이 글씨를 소장했던 의재가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신의 당호를 '수류화개관'으로 지은 계기가 됐다. 추사의 예서 중 가장 명작이라 할 수 있는 소동파의 시 '空山無人 水流花館(공산무인 수류화관)'은 빈 산엔 사람 없어도 물 흐르고 꽃이 피네를 의미한다.

2부인 '사승과 교유'에서는 의재의 학문과 서화 수련의 배경, 교유관계 등을 조명한다. 남종화의 대가로 거듭나기 전,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갈 때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예술세계'로 펼쳐지는 3부에서는 의재가 지향한 예술정신과 세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제4부 '의재 허백련의 제자들'은 연진회의 화우들과 제자들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된다.

조현종 관장은 "광주의 전통화단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재 허백련의 삶과 예술, 전통의 의미와 가치, 전통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62)570-7031


천왕사지 철불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서세옥 기증전 모습.

국립광주박물관 '의재 허백련' 전
하남역사박물관 천왕사지 특별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세옥 기증작' 전

이와 함께 경기 하남문화재단 하남역사박물관은 12월 10일까지 '고려가 사랑한 부처님의 나라, 천왕사지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하남시 하사창동 일대로 알려진 천왕사(天王寺)의 고고학 조사 성과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하남역사박물관은 지난 2009년부터 천왕사지에 대한 조사 · 발굴을 진행, 명문 기와 외에도 건물터와 목탑지 등을 확인했다.

특별전과 함께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을 찾아보는 '그림 속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와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의 이동경로교육, 토기 유물 속 '천왕(天王)' 글자를 색칠해보는 체험활동 등도 진행된다. (031)796-7640

또 국립현대미술관은 산정 서세옥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내년 3월 6일까지 진행한다. 1929년 태어난 서 화백은 수묵추상 분야를 개척한 이후 2014년 자신의 작품 100점을 미술관 측에 기증한 바 있다.

먼저 1월 3일까지 열리는 1부에서는 1960년대 묵림회를 통해 추구했던 수묵추상 작품들과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작품 50점이 전시된다. 2부는 1990년대부터 최근 작품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12~3월 6일까지 열린다.

서 화백은 1916년 국전 추천작가로 등단한 후 한국현역화가 1백인전(1973), 한국현대미술초대전(1984), 미국태평양아세아박물관초대전(1984), 서울올림픽기념 국제현대미술전(1988) 등에 참가 역량을 과시했다. 서울대 미술대학장으로 봉직하며 제자를 길러왔다.

평소 "화두를 들어서 정신통일을 하며 수행을 하는 것이나 무엇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화가의 자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서 화백의 예술 세계를 접하는 기회는 소중하다. (02)3701-95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중일 불교예술 연중 프로젝트 '레인보우 보디' 시작

부산 감천문화마을 '빈집' 3일부터 기획전


우나영 作 '레인보우 보디'

부산 감천문화마을 빈집 레지던시는 12월 3일 기획전시 'Rainbow Body'를 개막한 데 이어 연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빈집 레지던시는 감천문화마을의 빈집을 활용한 연중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공간구성에 승효상 등 세계적 건축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기획전은 김인철 건축가의 공간인 '색즉시공'에 입주한 우나영 작가를 비롯해 한국 · 미국 · 중국 3개국 총 6명이 함께한다.

이번 전시회 주제인 '레인보우 보디'는 티베트 불교철학에서 유래한 단어로 육체를 떠나 한줄기 빛이 되기 직전의 깨달음의 단계를 이르는 말이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행자가 아주 오랜 시간의 자아성찰과 자아직시를 하면 '레인보우 바디' 상태에 도달하며 이후 7일 정도의 시간 동안 무지개 빛에서 완벽한 흰 빛으로 녹아 든다고 말한다.

이들은 회화 · 영상 · 사진 · 설치예술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각자 살아온 문화와 환경에서 각각의 깨달음 'Rainbow body'에 도달하기 위한 방식을 표현해 낸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현실과 정체성,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선보인다.

한 · 중 · 일 작가 6명 참여해
티베트 불교 수행과정에 착안

먼저 우나영은 천이나 스팽글 등 비전통적인 재료들과 유화를 접목, 바느질 작업을 통해 여성 노동의 정치학과 성 정체성, 그리고 복잡 다양한 심리와 긴장 · 혼란 등을 표현했다.

장희진은 일상 속에서 자리 잡은 대중문화, 선전 등의 영상과 자료들을 비디오 작업으로 재편집해 소비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남학현은 서양화 · 수묵화 · 채색화 등 어떤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명확한 존재를 작품을 통해 가시화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앤드류 아난다는 백인 중심사회 속에서 유색인종의 정체성 및 정치학의 위기를, 에반 브라운스틴은 주변 사람과 세상의 상호관계 속에서 얻은 영감을 작품에 담아냈다.

사진 · 극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샤오통지앙은 중국의 현실과 딜레마를 바라보는 시선과 급격한 사회변화로부터 나타나는 개인 및 집단의식을 관객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빈집 레지던시 입주 작가 우나영은 "감천문화마을의 '문화'가 생활예술이나 미술공예를 넘어 현대미술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과 미국 교류, 한지로 해요"

영담 스님, 국회에서 '한지의 울림' 전

한미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태미)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국제교류전이 열린다. 바로 '한지의 울림' 전이다. '한지'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국회 의원회관 전시실에서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일반에 공개된다.

한지조형, 한지공예, 한지의상 등이 선보이는 이번 기획전에는 한지공예전문가 영담 스님을 비롯해 이우복 · 방조영자 · 케티이오 · 한규암 · 박은수 · 이석용 · 장석순 · 정영순 · 김은정 등 작가 10명이 참여한다.

이중 영담 스님은 대표적인 한지 전문가이자 닥섬유 예술활동가로 최근 미국 뉴욕과 이태리 밀라노에서 특별전을 열기도 했다. 2007년 국내 첫 한지미술관으로 등록한 청도 영담한지미술관장을 맡고 있으며 1천여 점에 달하는 한지 공예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전에 '백남준을 생각하며', '저혼', '조화' 등의 작품을 출품하는 영담 스님은 "한국과 미국의 교류를 맞아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작품을 내게 됐다. 한지 공예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지를 만드는 영담 스님

이태미 이사장은 "한국인의 생활과 정신문화 속에 깊게 뿌리내린 '한지'를 이용한 작품들이 소개될 것"이라며 "이번 국제교류 전시회가 한지공예의 국제적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실외 양초 공양집
일본 직수입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